

# **한국교회 재정운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 일 시 : 2006년 8월 10일(목) 오전 10시
- ▣ 장 소 : 청어람 3실
- ▣ 주 최 :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 ▣ 주 관 : 교회개혁실천연대

# 진행순서



사회자 / 방인성 집행위원장

- 인사말 / 오세택 공동대표
- 취지 및 경과 [3p]
- 조사개요 및 조사결과 발표 / 최호윤 회계사 [6p]
  - 재정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 예·결산자료를 토대로 한 현황조사 결과
-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과 제언 / 박득훈 공동대표 [17p]
- 향후 사업계획 발표 / 구교형 사무국장 [19p]
- 질의응답
- 
- \* 별첨: 재정담당자 설문지 [21p]

## 취지 및 경과

### ○ 사업취지

한국교회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4년 현재 최근 5년 동안 한국교회는 약 11%의 교세가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교회 뿐 아니라 대학청년층 선교에 주력하는 선교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에 조사한 캠퍼스 사역 컨퍼런스에 따르면, 주요 학생선교단체의 여름수련회 참가자 수가 2001년 이래 3년 만에 9%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교회(기독교)에 대한 세상(사회)의 불신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2004년 한국인 종교의식'에 따르면 비종교인들이 느끼는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는 불교(37.4%), 가톨릭(17%)인데 비하여 개신교는 12.3%에 불과했습니다. 또 2005년 '한국교회미래를준비하는모임' 조사에서 종교 지도자의 자질우수성을 묻는 질문 역시 개신교(12.0%) 천주교(31.8%) 불교(21.2%)로, 개신교 종교지도자에 대한 비종교인의 불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신감의 이면에는 교회의 비밀주의와 폐쇄성이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교회재정사용의 불투명성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원칙 없이 헌금을 걷고, 모인 재정을 합당한 기준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무책임하게 집행하고, 사후 감사마저 부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가 진리의 터전답게 깨끗하고 건강한 원칙을 갖춘 재정원칙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여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엄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한국교회에 보급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한국교회에 제시하고 건강성을 회복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 ○ 단체구성

- 명칭: '건강한 교회재정 확립네트워크'
- 참여단체: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강영안 김동호 김일수)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 백종국 오세택)  
바른교회아카데미(이사장 정주채 원장 김동호)

## ○ 사업 개요

- 목적(사명): 교회재정운영의 건강성을 증진시켜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한다.
- 전략목표 및 실행계획

전략목표	실행계획
재정사용 원칙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경적 기준(원칙) 제시</li> <li>•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자료 발표: 개별교회 재정결산서 분석</li> <li>• 표준조례 발표</li> <li>• 사례 소개</li> </ul>
회계프로그램 보급 및 관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인 장부정리와 공시를 위한 회계프로그램 보급</li> <li>• 재정 담당자 교육 및 네트워킹</li> </ul>
교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단체 수련회, 아카데미 등을 통한 교육</li> <li>• 자료집 출판</li> </ul>

## ○ 진행 경과

2005.4.16.		개혁연대 재정운동 기획 회의(최현돌 교수 참석)
□		
2005.8.18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단체 구성 및 1차 회의
□		
2005.10.7		2차 실무 회의
□		
2005.11.17		3차 실무 회의
□		
2005.12 ~		개교회 예·결산보고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 실시 (개혁연대 주관)
□		
2006.2.		교회재정관리규칙 제정위원회 구성(개혁연대 주관)
□		
2006.4 ~		예·결산보고자료 및 설문자료 입력 및 분석
□		
2006.4.24		교회 재정의 건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기윤실 주관)
□		
2006.5.11.		재정담당자·목회자 대상의 내부간담회 실시
□		
2006.5 ~		재정규칙 초안 제정작업
□		
2006.6.14.		4차 실무 회의
□		
2006.8.10.		한국교회 재정운용 실태조사 결과발표

## 조사개요 및 조사결과

한국교회 재정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만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의 주장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회재정 분석작업을 위하여 공식·비공식적으로 많은 교회에 결산서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폐쇄적인 내부정책으로 인하여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46개 교회 결산서와 23명의 재정담당자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입수할 수 있었다.

교회별 규모·지역·교단 분포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정한 선정기준에 의한 표본추출이 아니므로 제시된 46개의 교회의 결산서가 모집단인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으나, 한국교회 재정결산서 분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46개 교회의 자료라도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추출된 표본이 된 교회들은 교회 재정 보고서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개혁성향의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제시된 결산서는 외부감사에 의하여 계정과목 분류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기록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기록이 적정히 이루어졌다는 전제로 분석작업에서 달리 수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를 제한적으로 한국교회에 투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인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교회들의 재정운용상황을 정리·분석하는데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 A. 재정담당자의 재정운용 인식도 분석

무기명으로 재정관련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23명의 실무자가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다른 담당자가 동일한 교회에 출석할 수는 없으므로 23개 교회의 설문조사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14명의 담당자는 재정자료를 같이 제시하였으며, 9명의 담당자는 재정자료 공개 없이 설문조사에만 응하였다.

설문지(별첨, 21p)에서 파악하고자 의도한 내용은 단계별로 다음과 같다.

- Ⅰ 재정관련 규정의 유무
- Ⅰ 예산설정 및 통제
- Ⅰ 업무의 분장
- Ⅰ 재정 담당자들의 자질 및 교육
- Ⅰ 재정운용사례분석
- Ⅰ 감사 및 조정 기능
- Ⅰ 재정관리에 관한 관심도

#### 가) 재정관련 규정의 유무

23개 교회 중 17개 교회(74%)에서 정관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14개 교회의 정관에 재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1개 교회는 정관 없이 재정에 관한 규정만 있다고 답하였다.

회계처리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6개교회만 정관규정에 따른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정관에 있는 재정에 관한 규정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 나) 예산설정 및 통제

18개 교회(78%)에서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8개 교회만 예산설정을 위한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교회는 예산제도가 없거나 예산설정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예산이 없거나 예산 설정 지침이 없다는 사실은 교회가 재정을 무엇을 위하여 집행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이전 년도 결산 내역에 준하여 집행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상황에 따라 특정인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재정운영을 방지할 장치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예산위원회 인원은 3명~23명까지이나 5명(26%)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위원장의 직분은 주로 장로(65%)였다.

예산에 없는 항목을 지출하거나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65%), 예산초과지출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승인 받거나(30%) 당회 승인 후 지출하는 경우(26%)가 일반적이었다.

건축헌금 등 목적헌금을 은행계좌를 구분(39%) 또는 구분 없이 사용(26%) 하더라도 사용 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3개 교회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후 보충하고 1개 교회는 헌금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다.

#### 다) 업무의 분장

20개(87%)의 교회가 집행자와 승인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13개(56%) 교회만 집행자와 기록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교회에서 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류 또는 부정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구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라) 재정 담당자들의 자질 및 교육

7개 교회의 재정담당자(30%)만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재정담당자의 평균 재임기간은 2~3년(65%)이며, 10년인 교회(1개)도 있었다.

2개 교회(8%)만 담당자를 위한 내.외부 교육을 실시하며, 담당자들은 주로 인수인계절차에 의하여 업무를 파악(56%)하나, 회계처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신임 담당자가 인수인계만으

로 담당할 업무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18개 교회(78%)가 업무인수인계처리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자의 상식에 의한 인수인계 이므로 후임자가 그 내역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마) 개별 재정운용 사안**

##### **- 회계처리기준**

15개 교회(65%)가 정관에 재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6개 교회(26%)만 정관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은 정관규정이 형식적이어서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3개 교회(13%)는 교회와 무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8개 교회(34%)는 상식에 의존하여 처리하고 있는 현상은 교회회계기준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 복식부기 채용**

5개 교회(21%)가 복식부기를 채용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아직 그 비중이 낮으며, 4개 교회만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한다고 답하였다.

나머지 교회들은 장부가 아닌 메모형식으로 자산·부채를 관리한다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 회계처리 도구**

9개 교회(39%)가 교회관리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4개 교회만 복식부기에 의한 자산부채명세를 장부에서 산출하므로 4개의 교회는 복식부기용 프로그램, 5개 교회는 단식부기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교회는 엑셀 또는 워드를 사용하는 수작업 방식으로 결산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 보고서의 종류**

대부분의 교회들이 수지결산서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있으며(82%), 1개 교회만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고 답하였다.

##### **- 결산서 작성주기**

매월 작성하는 교회가 10개 교회이었고 분기별은 5개 교회, 년간은 4개 교회가 작성하고 있다.

#### **바) 감사 및 조정 기능**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감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이기보다는 평범한 일반인으로 구성되며 평균 1년에 1번(47%) 감사를 시행하나 매월 감사를 시행하는 교회도 있었다.

감사결과는 담임목사 또는 당회에 보고되어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있으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전혀 없다고 답한 교회가 7개 교회라는 사실은 감사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사) 재정관리에 관한 관심도

21개 교회 담당자들은 교회재정을 교인들에게 완전 공개 또는 대부분을 보고하도록 생각하는 반면에, 15개 교회만 일반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답변자 중 17개 교회(73%) 담당자들이 한국교회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Ⅰ 담당자나 교인모두가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책임감이 없다.
- Ⅰ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재산취득 및 운영유지비로 사용하고, 이웃을 돕거나 선교에 사용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
- Ⅰ 당회장 또는 소수에 의하여 재정운용이 전횡되고 있다.

또한 답변자들은 예산 편성 및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 Ⅰ 운영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편성은 이웃구제, 선교 및 장학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14인).
- Ⅰ 교회의 장기적인 목표와 예산의 연계가 필요하다.

### 아) 기타

- 목회자의 재정에 관한 관여도

17개 교회(73%)가 전혀 관여 않거나, 아주 깊이 관여하는 양극화 현상이다.

- 소득세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3개 교회(13%)만 교회 소속인원들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 B. 결산자료분석

수집된 결산서의 규모별 통계치를 정리하여 규모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비중 차이를 분석, 규모의 차이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변화 여부, 수입 및 지출항목의 특성, 계정과목 사용의 적정성 및 보고서 형태의 유용성을 파악하였다.

### 1. 표본추출

결산서를 입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공지, 개별접촉 등의 방법으로 결산서 제시를 요청한 결과 제시되는 결산서 모두를 표본으로 선정하되 2개 년도가 중복된 교회의 결산서, 결산자료 중 일부가 누락된 교회의 결산서, 단순한 예산만 기록한 결산서, 연간 수입 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2개 교회의 결산서를 제외한 28개 교회의 결산서를 표본으로 하였다.

<표> 그룹별 수입규모

연간 수입금액 규모	교회수	비율(%)	수입금액	비율(%)
그룹1: 1억 미만	3	10.71	135,735,603	0.29
그룹2: 1억 이상 - 2억 미만	4	14.29	561,773,813	1.21
그룹3: 2억 이상 - 5억 미만	8	28.57	2,937,088,731	6.33
그룹4: 5억 이상 - 10억 미만	5	17.86	3,590,078,732	7.74
그룹5: 10억 이상	8	28.57	39,168,493,031	84.43
합 계	28			

## 2. 계정과목의 재분류 (Grouping)

개별 교회마다 서로 다양하게 다른 계정과목체계를 사용하고 있고, 계정과목 중간 분류합계계정도 상이하므로 통계의 편의를 위하여 최하위 계정의 중간 합계 계정을 금액과 의미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재분류하였다.

### 가) 수입항목

- | 십일조헌금: 십일조헌금
- | 일반헌금: 주일, 주정, 월정, 구역헌금
- | 절기헌금: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신년 감사헌금
- | 감사헌금: 일반감사 헌금
- | 선교헌금: 국내외 선교헌금
- | 구제헌금:
- | 건축헌금:
- | 기타목적헌금: 선교, 구제, 건축 이외의 다른 용도를 지정한 헌금
- | 기타헌금: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헌금
- | 수익사업수입: 임대수입 등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문의 수입
- | 자산, 부채변동: 자산처분 및 회수, 차입금의 발생 등 자본수지의 변동을 가져오는 항목
- | 기타수입: 예금이자 및 상기 이외 수입항목

### 나) 지출항목

- | 사례비: 성역비, 교역자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교역자의 기본생활관련 비용
- | 예배, 목회비: 성가대 또는 찬양대비, 주보인쇄, 성례비, 목회활동비
- | 교육비: 교회학교 및 장년교육
- | 전도비: 교회가 주체적으로 전도활동할 때 소요되는 비용

- | 관리비: 시설관리, 차량유지 등 관련 비용
- | 사무행정비: 사무비 및 일반 행정을 위한 비용
- | 친교비: 자체 식당운영비
- | 행사비: 내부 체육대회, 야외행사비 등
- | 선교비: 대외적 선교지원금
- | 구제비: 사회봉사 성격의 대외적 지원비
- | 자산취득, 적립: 적립금납부액, 고정자산구입
- | 부채상환: 차입금 원금 상환액
- | 금융비용: 차입금 이자비용
- | 예비비: 예비비 계정을 사용한 금액
- | 기타지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지출

### 3. 수입분석

수입계정 처리는 전체적으로 교회마다 유사하였으며 항목별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항목별 수입계정 내역

구 분	비율(%)
감사헌금	9.34
십일조헌금	56.58
절기헌금	5.77
구제헌금	0.19
선교헌금	1.16
건축헌금	5.42
기타목적헌금	0.57
일반헌금	9.54
기타헌금	1.21
수익사업수입	0.48
자산·부채의변동	8.41
기타수입	1.33

#### 가) 십일조

교회규모와는 상관없이 수입금액의 가장 큰 비율(56.58%)을 십일조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황호찬/최현돌 교수가 조사하였던 1996년의 자료(53.3%)와 큰 차이가 없다.

#### 나) 목적헌금-대외

선교 또는 구제로 사용목적에 정한 헌금 비율은 각각 1.16%와 0.19%에 불과한 사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선교 또는 구제 목적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 내부 재산 형성

대외사용이 2.35%에 불과한 반면 내부 건축목적헌금 및 이에 따른 자본 변동으로 인한 수입이 13.83%에 달하며, 이러한 현상은 초기 단계를 지나 중간규모의 교회에서 건축헌금 비중이 높으며, 소규모 교회보다는 대규모교회에서 자산처분으로 인한 수입 발생액의 금액적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 라) 절기헌금

절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비슷한 형태를 나타냈으며, 중간 그룹부터는 항목을 통합 또는 분리 표시하는 차이로 비율 차이를 나타내었다.

분류	전체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그룹5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신년예배	202,909,700	0.4	0	0	4,349,000	0.8	14,056,200	0.5	24,447,700	0.7	160,056,800	0.4
부활절헌금	374,295,485	0.8	615,000	0.5	8,060,500	1.4	43,062,450	1.5	30,926,720	0.9	291,630,815	0.7
맥추감사절	101,715,000	0.2	480,000	0.4	7,675,000	1.4	30,980,000	1.1	13,971,000	0.4	48,609,000	0.1
추수감사절	785,609,849	1.7	593,000	0.4	14,338,000	2.6	78,901,260	2.7	59,755,290	1.7	632,022,299	1.6
성탄절	332,019,626	0.7	691,000	0.5	5,804,000	1	35,885,670	1.2	28,540,900	0.8	261,098,056	0.7
절기헌금	880,475,360	1.9	0	0	16,485,010	2.9	10,962,950	0.4	0	0	853,027,400	2.2

#### 마) 일반헌금

주일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등 경상성격의 헌금은 교회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10% 내외의 비율을 보였다.

#### 바) 수익사업수입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교회 건물을 교인을 포함한 외부인에 임대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수취하는 교회가 있었다.

### 4. 지출분석

교회 연간 수입금액 규모별로 지출형태에 일부 차이가 있으며, 교회 규모에 따른 항목별 지출비율은 다음과 같다.

#### <표> 규모별 지출금액 내역

지출항목 대분류	전체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그룹5
사례비	16.91	40.14	29.52	25.12	25.16	15.29
예배, 목회비	3.37	2.96	4.95	4.43	5.98	3.05
관리비	5.25	5.79	7.56	2.22	5.78	5.37

사무관리행정비	22.28	15.42	21.67	26.2	23.89	21.92
전도비	0.78	0.68	1.31	1	1.92	0.67
친교비	0.4	3.28	1.99	0.58	1.35	0.26
행사비	1.42	0.65	1.94	1.77	3.21	1.24
교육비	5.92	2.9	5.8	9.73	9.04	5.41
구제비	3.11	0.23	1.98	3.55	3.67	3.07
선교비	10.67	5.89	4.06	8.46	5.79	11.38
외부지원	0.99	5.3	2.78	3.8	3.93	0.49
자산취득, 적립	10.23	7.89	10.81	5.57	7.59	10.76
부채상환금	11.42	8.88	0.39	0.21	1.3	13.27
금융비용	2.51	0	4.98	0	1.23	2.75
기타지출	2.98	0	0	7.03	0.01	3.02
예비비-지출	1.78	0	0.25	0.34	0.17	2.05

전체적으로 교회 재정은 사무관리비, 사례비, 재산 적립 또는 부채상환(금융비용 포함)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표시된다. 이는 내부의 유지와 확장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가) 목회자 사례비

미자립 교회 또는 규모가 작은 경우 지출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수입규모가 증가할수록 그 비중은 낮아진다.

#### 나) 관리 및 사무행정비

교회 규모와는 상관없이, 행정비 성격인 내부 사무 및 관리비용이 가장 큰 비중(27.53%)을 차지하고 있다.

#### 다) 교육비

중간 규모의 교회에서 투입하는 교회학교 및 교인들을 위한 교육비 비중(5.8%~9.04%)이 소형(2.9%) 또는 대형교회(5.41%)의 비중보다 높다.

#### 라) 구제·선교비

선교헌금, 구제헌금 비율에 비하면 지출 비율이 높으나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는 교회의 관심으로는 낮다고 할 수 있다.

#### 마) 특별재산관리비의 증가

교회규모가 확대될수록 교회 재산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차입하였던 부채상환 비중이 높아져간다는 것은 교회규모가 클수록 내부관리비용의 요구가 높아지고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자기관리비용이 증가한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 **바) 기타지출·예비비지출**

대형화가 되어갈수록 지출규모도 커져가지만 예비비 사용비율이 높다.

예산 작성 시 필요한 예산을 유보시켜두는 개념의 예비비 계정을 지출 계정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정사용 내역을 별도 승인을 받거나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어야 하나, 이를 보여준 결산서는 전혀 없었다.

### **5. 재산관리와 복식부기**

수지결산서로는 적극적인 재산(자산)과 소극적인 재산(부채)의 실재성과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2개 교회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으며, 4개 교회가 수지결산서에 재산 및 부채 현황표를 첨부하였으나 대부분의 교회는 단식부기에 의한 수지결산서만 작성하였으며, 재정담당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메모형식의 비망기록으로 관리하고 있다.

비망기록은 변동내역관리 등 기록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교회들이 재산관리에 취약하다.

### **6. 회계처리의 문제점**

교회의 수지결산서를 정리하면서 파악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정형화된 분류기준 또는 보고형식이 없다**

28개의 교회 결산서 중 수입금액 분류는 비슷하나 형식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교회는 한 곳도 없었다. 즉, 교회 결산서의 형식은 재정 담당자의 능력, 교회의 관리 필요성에 따라 추가되거나 삭제되었기에 정형화된 보고서의 체계를 찾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교회들 간의 재정사용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수직적 또는 수평적 비교가능성은 회계정보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유용한 속성 중의 하나이나 교회별로 다른 형식의 결산서를 만들었기에 타 교회의 결산서와 비교, 참고하여 교회의 재정관리를 개선하거나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든 교회가 수지결산서만 작성하고 있으나, 수지결산서의 근본적인 한계인 활용 가능한 교회내부의 자원 활용결과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나) 계정과목의 다양성**

결산서는 재정의 수입과 운용에 대한 결과를 숫자로 표현한 또 다른 형태의 언어이므로 결산서를 보는 사람은 결산서를 작성한 사람이 표현하고자 한 재정운용 내역과 동일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결산서는 재정운용 내역을 작성하는 사람과 이를 보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므로 그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정보전달에 있어서의 혼선을 야기하는 위험이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정과목을 사용할 때에는

계정과목의 명칭만으로도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계정을 신설할 때에는 의미전달에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한다.

그러나 현재 교회재정보고서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의미하는 내용은 사용자의 성격에 따라 교회마다 다르다. 즉, 동일한 재정 집행내역이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일식당 운영비를 '예배비', '전도비', '후생비', '교제비' 등으로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재정보고서를 보는 사람입장에서 서로 다른 계정과목으로 표현된 항목을 보고 이를 주일 식당운영비로 동일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 **다) 계정과목 체계의 복잡성 및 단순성**

계정과목을 개별교회의 필요에 따라 신설하거나 통합하였기에 때로는 아주 세분화 시켜 지출내역을 나열하는 형태(예: 사례비를 목회자 개인별로 계정과목화하여 기록)로 계정을 사용하거나, 부서를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나열하는 형태의 계정과목 사용은 보고서의 분량이 방대해지므로 보고용 결산서라고 하기보다는 계정별 내역을 표현하는 장부이며, 부서의 지출액 합계를 통합계정과목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재정운용내역을 표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 **라) 모호한 계정과목의 사용**

계정과목만으로 재정사용내역을 정리할 수가 없으면 결산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순히 계정과목으로 '행사비' 또는 '수련회 진행비'로 표현된 경우 이를 보는 사람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출된 비용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으나 행사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항목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며, 미래 유사한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예측 가능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 이러한 포괄적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항목을 정리한 부속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하나 구체적인 정보를 첨부한 결산서는 없었다.

#### **마) 정액 비용으로 결산**

교회재정결산서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정액 지급액이 많은 점이다. 정액지급액은 실제 발생액을 정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하고 그 범위내에서 자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며, 이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하는 청지기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인건비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였기에 상관이 없으나 그 이외의 항목은 활동과정에서 발생·지출하는 실비변상의 성격이므로 정액을 지급한 후 지출액이 만원단위 또는 천원단위로 결산할 것이 아니라 사용액을 정산하여 남으면 재정에 환입시키고, 모자라는 금액은 추가 정산하여 지급된 금액을 실제발생액 기준으로 일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정액지출액이 많다는 현상은 재정집행내역을 정확히 계산하여 관리한다는 개념보다는 재정을 직접 집행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특정 범위내에서 집행자(담임 교역자 또는 재정관리자)가 알아서 잘 사용할 것 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재정을 관리하는 현상이다.

이는 특정인의 신앙적 양심에 의존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언제든지 재정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용 지급이 실비변상 성격인가 아니면 특정인에게 귀속되는가의 구분은 다음의 항목 중의 하나에 해당하면 특정인에게 급여성격으로 귀속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 a) 비용집행으로 인한 결과가 특정인에게 전속되거나,
- b) 실제 사용과는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 **바) 예비비 계정의 사용**

교회가 결산계정과목의 지출항목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점은 예비비의 개념을 혼돈되고 있다.

예비비는 예산회계통제 개념을 중요시하는 정부회계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예산 계획 시 확정되지 않은 계획에 대한 예산 추정액을 미리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예산 수립시 지출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며, 예산 집행 시 예비비를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예산회계법 21조, 39조, 40조 참조).

정부회계에서 사용하는 예비비의 개념을 예산 수립시에는 사용할 수는 있으나 결산 처리시에는 그 사용내역을 해당하는 계정과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예비비 사용의 구체적인 내역을 결산 승인시 별도로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사) 자산관리기능의 부재(단식부기의 한계)**

모든 교회가 수입, 지출 항목을 집계한 수지결산서 개념의 보고서를 만들고 있으나, 수지결산서의 가장 큰 단점은 교회의 적극적 재산(자산)과 소극적 재산(부채)관리를 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자산의 취득 또는 적립을 모두 지출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계처리로는 현재의 취득한 재산관리 또는 적립한 재원을 정확히 또는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

일부 교회가 수지 결산서와 별도로 재산항목을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대차평균의 원리가 적용되는 복식부기에 근거하지 않은 회계처리로는 재산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

### **7. 총평**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교회재정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첫째는 교회의 재정 관리는 좋은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덮어주는 관점은 교회에 맡겨진 하늘나라 재원을 정확히 관리하지 못한다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둘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회의 재정관리가 운용되어 간다는 사실 자체를 감사하여야 하나, 일반 사회보다 물질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거나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는, 교회재정문제를 덮어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수면위로 내어놓고 같이 고민하면서 바른 길로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는 이러한 연구가 한국교회 재정현황을 바로 분석하고 바른 대안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추가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과 제언

이번 조사결과는 통계학적 입장에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동안 한국교회 재정운용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안티기독교 세력이 퍼뜨린 사실무근의 유언비어나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교회재정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그리고 돈 지갑의 회심이다'고 예리하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이 명제를 성도들로 하여금 더 많은 헌금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자체에 돈 지갑의 회심이 더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는 점을 종종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엄청난 돈 지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100명당 일 년 예산 수입을 1억으로 잡습니다. 개신교성도를 861만 명으로 잡을 때 1년 교회 수입이 대략 8조 6100억 원에 이른다 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막대한 돈 지갑운영과 관련된 잘못을 회개할 때, 한국교회는 비로서 진정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 **첫째, 한국교회는 돈의 왜곡된 논리와 굴레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토머스 머튼이라는 카톨릭 수도사는 이미 1900년대 중반에 '현대사회에서 돈은 성령이 교회에서 차지해야 할 역할을 악마적으로 찬탈해버렸다'고 예리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는 달리 성령의 지시와 인도에 민감하게 순종하기 보다는 돈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흠쳐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자고 엘룰의 예리한 성찰에 귀를 기울여야합니다: '부 자체는 악이 아니라 유혹이다... 부가 유혹이라는 말은 부가 종립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부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의 위대한 정신과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악을 주로

드러낸다. 돈은 타락의 기회다’.

한국교회는 돈을 축적하여 돈이 주는 각종 편의와 영광을 누리고 싶은 욕망과 치열하게 싸워야합니다. 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교회규모가 커지면서 사례비의 비중은 상당히 줄어든 반면(40.14%→15.29%) 사무관리행정비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15.42%→21.92%) 구제비 비중의 증가는 아주 미미합니다(0.23%→3.07%). 여기서 개신교회가 한국사회의 전체 사회복지기금의 70%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사회복지비가 교회전체 재정에 비하면 껌 값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두 렵돈이 아닌 것입니다. 돈 지갑의 회심은 구체적으로 교회의 물적 확대를 위한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고 구제를 위한 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 **둘째, 책임 있는 청지기의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돈이 담임목사나 재정담당자의 것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의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돈을 맡은 청지기 일 뿐입니다. 계정과목을 교묘히 활용하거나 예비비란 명목으로 목회자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재정을 허술하게 주목구구 식으로, 불투명하게 운용함으로써 다양한 범죄가 끼어들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는 것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는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향후 활동계획

### ○ 재정규칙 제정작업

•취지: 현 교회의 문제 가운데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이 교회재정에 운영에 대한 부분이다. 교회재정의 불투명성과 유용 내지 착복 등의 행위와 헌금의 부당한 강요로 인한 교인들의 피해 등 돈에 관련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에서는 이 문제를 원초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정관을 작성하여 각 교회에 배포하여 각 교회에 맞는 재정정관을 제정하여 사용하도록 권면할 것이다.

•'교회재정관리규칙 제정위원회' 구성

준비위원: 고상환 집사(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시흥교회) 백종국 교수(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경상대) 이방욱 집사(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금성교회)

•발표시기: 2006년 10월(예정)

### ○ 재정담당자 교육사업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 보급

#### •교육목표

1. 재정의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2. 일반적인 회계의 원칙들을 교육하여 기본개념을 충실히 한다.
3. 교회재정이 갖는 특수성을 살펴보고 이해하게 한다.
4. 재정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감사의 과정을 세분화하여 교육한다.
5. 건강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사용하게 한다.

#### •교육내용

1. 회계의 기본원칙, 재정의 흐름에 대한 기본정의 등 교육.
2. 투명하고 건강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의 실 사례 분석 및 제시.
3. 전반적인 재정운영 뿐만 아니라, 세부항목을 선정하여 보다 세밀한 교육 실시.
4. 예산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감사의 항목별로 다양한 샘플 제시.
5. 개 교회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 제공.

•교육일정(예정)

\* 1차 교육(2006년 10월 중)

주요내용

- 재정 및 회계의 기본 이해
- 예산수립 사례소개 및 분석
- 예산수립 방법과 절차

\* 2차 교육(2007년 1월 중)

주요내용

- 예산집행 사례소개 및 분석
- 예산집행 방법과 절차
- 추경예산 수립

\* 3차 교육(2007년 3월 중)

주요내용

- 회계감사 사례소개 및 분석
- 회계감사 방법과 절차

\* 4차 교육(2007년 5월 중)

주요내용

- 실무자교육 : 회계담당자 장부정리/회계프로그램사용
- 회계프로그램 사용 교회의 사례 제시

## 별첨

## 설문지

작성일자:    년    월    일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바른교회아카데미와 함께 한국교회의 재정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위해서는 개별교회의 재정현황 자료를 바탕으로한 실태조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회복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본 설문지는 총체적 분석 자료로만 활용되며 교회명이나 작성자 등 기타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1. 귀 교회는 교회의 규약인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아니오로 대답하신 분은 2번 문항 생략함)
2. 정관에 재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3. 귀 교회는 현재 부채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아니오로 대답하신 분은 3번 문항 생략함)
4. 부채가 있다면 연간 수입액 대비하여 부채잔액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_\_\_\_\_ %
5. 귀 교회는 수익사업(예: 출판사, 서점, 납골당, 임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6. 예산제도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아니오로 대답하신 분은 7번 ~ 12번 문항 생략함)

7. 예산설정을 위한 지침(기준, manual)은 문서화 되어있습니까?

예(     ), 아니오(     )

8. 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까? 예(     ), 아니오(     )

9. 예산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원: \_\_\_\_\_명, 위원장의 교회직분: \_\_\_\_\_

10.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이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까? (해당란에 O표)

거의 고려안함    약간 반영    보통    상당히 반영    거의 반영

1-----2-----3-----4-----5

11. 예산집행과정 중 예산에 없거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지출이 불가능하다 (     )

❖ 추가경정 예산에 의하여 수정된 후 지출한다 (     )

❖ 당회의 승인후에 지출한다 (     )

❖ 제직회의 승인후에 지출한다

❖ 담임목사의 승인하에 지출한다 (     )

❖ 재정부장의 승인하에 지출한다 (     )

❖ 특별한 조치 없이 지출한다 (     )

❖ 기타: \_\_\_\_\_

12. 예산에 없거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의 발생빈도는? (해당란에 O표)

거의 없다    약간 발생    보통    자주 발생    상당히 자주 발생

1-----2-----3-----4-----5

13. 특별히 용도를 지정한 현금(예: 선교현금, 건축현금 등)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합니까?

❖ 은행계좌를 구분하여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     )

❖ 은행계좌 구분함 없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     )

❖ 예산부족시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보충하기도 한다 (     )

❖ 지정된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한다 (     )

❖ 기타: \_\_\_\_\_

14. 현금의 수입과 지출은? 동일인이 취급한다(     ), 다른 사람이 취급한다(     )

15. 비용지출을 집행하는 사람과 승인하는 사람은? 동일하다(     ), 다르다(     )

16. 지출결의서에는 누구누구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예: 담임목사, 재정부장장로 등 모두)

\_\_\_\_\_

17. 현금 수입/지출 업무와, 이를 장부에 기록하는 업무는?
- ❖ 동일인이 수행한다 (   )
  - ❖ 다른 사람이 수행한다 (   )
18. 재정운용담당자의 평균적인 관리업무 담당기간(중임기간 포함)은? \_\_\_\_\_ 년
19. 재정운용 담당자를 교육하는 과정(외부교육 포함)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20. 재정운용 담당자의 회계처리 능력 정도는?
- ❖ 회계처리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   )
  - ❖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아서 한다 (   )
  - ❖ 관련 경험은 없지만 일단 시작한다 (   )
21. 재정담당자 업무의 인수인계 처리기준(manual)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2. 귀 교회가 재정운용을 기록하는 회계처리기준이 무엇인가?
- ❖ 교회의 정관규정 (   )
  - ❖ 교단(또는 노회)에서 제정한 기준 (   )
  - ❖ 기업회계기준 (   )
  - ❖ 별도 회계처리기준이 없고, 상식 (   )
  - ❖ 기타 기준: \_\_\_\_\_
23. 개별 계정과목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 교단(또는 노회)에서 제시한 계정을 그대로 사용 (   )
  - ❖ 예산설정지침을 잘 표현하는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   )
  - ❖ 타교회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을 선택한다 (   )
  - ❖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   )
24. 목회자 사례비를 분류하는 계정과목은?
- ❖ 재정부족으로 사례비 지급하지 않는다 (   )
  - ❖ 지급 성격을 구분하여 예배비, 목회비 등으로 구분한다 (   )
  - ❖ 정액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사례비로 처리하고, 실제 사용액을 정산하는 금액은 해당 항목별로 구분하여 도서비, 여비교통비, 심방비 등으로 구분한다 (   )
  - ❖ 명칭과 상관없이 지급액 전액을 한가지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
25. 귀 교회의 회계처리 방식은? 단식부기(   ), 복식부기(   )
26. 교회의 재정관리에 프로그램을 활용합니까?
- ❖ 교회관리용 전문 프로그램 (   )
  - ❖ '엑셀'과 같은 수식관리(Spread Sheet) 프로그램 (   )

❖ 수작업(워드 작성 포함)으로 하고 프로그램 사용은 없다. ( )

27. 귀 교회는 개별 재산(예금, 유형자산 등), 부채(차입금 등) 명세를 별도로 관리합니까?

❖ 복식부기 장부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 )

❖ 수지결산서남 작성하므로 항목별로 별도 메모로 관리한다 ( )

❖ 명세를 작성하지 않는다 ( )

28.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는가? 예( ), 아니오( )

29. 귀 교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30.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교회회계와는 별도로 처리합니까? 예( ), 아니오( )

31. 귀 교회가 작성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종류는?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

❖ (자금)수지결산서 ( )

❖ 대차대조표 ( )

❖ 운영성과표(활동보고서) ( )

❖ 기타: \_\_\_\_\_

32. 수지결산서만 작성하는 경우 결산서에 표시 못하는 보충적 정보들을 결산서 하단에 주기  
(註記)처리합니까? 예( ), 아니오( )

33. 귀 교회는 교회 운영시 상기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활용합니까? (해당란에 O표)

활용 없음   약간 활용   보통 활용   상당히 활용   아주 많이 활용

1-----2-----3-----4-----5

34. 교회 재정에 대한 감사제도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아니오로 대답하신 분은 35번 ~ 38번 문항 생략함)

35. 재정을 감사하는 사람은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당란에 O표)

비전문가전문가

1-----2-----3-----4-----5

36. 감사를 하는 경우 1년에 몇 번 정도 수행합니까? \_\_\_\_\_ 번

37. 감사 후 지적사항이 발생합니까? 예( ), 아니오( )

38. 감사의 결과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해당되는 곳 전부에 표시 바람)

❖ 담임목사에게만 보고되고 시정한다 ( )

- ❖ 당회에 보고되고 시정한다 (    )
- ❖ 재정부장에게 보고되고 시정한다 (    )
- ❖ 그 자리에서 시정하는 것으로 그친다 (    )
-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
- ❖ 기타: \_\_\_\_\_

39. 결산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0. 예산과 결산에 차이가 있을 때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수립에 반영합니까?  
예(    ), 아니오(    )

41. 재정에 관한 서류를 몇 년간 보관합니까? \_\_\_\_\_ 년

42. 결산서를 공개합니까? (해당되는 곳 모두 표시)

- ❖ 공개하지 않는다 (    )
- ❖ 당회에 보고 (    )
- ❖ 제직회에 보고 (    )
- ❖ 공동의회에 보고 (    )
- ❖ 교단 총회에 보고 (    )
- ❖ 내부교인에게만 공개 (    )
- ❖ 외부사람들에게도 공개 (    )

43. 공개한다면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 ❖ 인쇄한 유인물로 배부 (    )
- ❖ 인쇄한 유인물 배부 후 회의 종료시 회수 (    )
- ❖ 인터넷(Web)에 게시 (    )
- ❖ 인쇄한 책자로 비치 (    )
- ❖ 파워포인트 등 스크린화면으로 공개 (    )
- ❖ 자료없이 구두로만 설명 (    )
- ❖ 기타: \_\_\_\_\_

44. 결산서는 몇 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공개합니까?

- ❖ 매 월 (    )
- ❖ 분기별 (    )
- ❖ 반기별 (    )
- ❖ 년 간 (    )
- ❖ 기타: \_\_\_\_\_

45. 결산서를 공개하는 정도는?

- ❖ 결산서 세부항목을 모두 공개한다 (    )
- ❖ 요약정보만 공개한다 (    )
- ❖ 기타: \_\_\_\_\_

46. 귀 교회의 교인들이 재정운영상황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도는? (해당란에 O표)

무관심    별로 없다    보통    관심을 표명    적극적

1-----2-----3-----4-----5

47. 귀 교회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 등록을 하였는가?

- ❖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 교단 총회 번호를 활용한다 (    )
- ❖ 개별교회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 등록하였다. (    )
- ❖ 무슨 애기인지 모르겠다 (    )
- ❖ 기타: \_\_\_\_\_

48. 귀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가? 예(    ), 아니오(    )

49. 귀 교회 소유 재산의 등록 명의자는 누구인가?

- ❖ 교단 명의 (    )
- ❖ 교회 명의 (    )
- ❖ 담임목사 명의 (    )
- ❖ 교인 공동명의
- ❖ 기타: \_\_\_\_\_

50. 귀 교회 담임목사는 교회재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여하는가? (해당란에 O표)

거의 관여 없음    약간 관여    보통    상당히 관여    아주 많이 관여

1-----2-----3-----4-----5

51. 귀하는 교회재정의 운용상태가 교인들에게 어느 정도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보고 안함    약간 보고    보통으로 보고    많이 보고    완전히 보고

1-----2-----3-----4-----5

52. 귀하는 교회재정의 운용상태가 일반사회에 어느 정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공개 안함    약간 공개    보통    많이 공개    완전히 공개

1-----2-----3-----4-----5

53. 귀하는 교회에서 발표하는 회계보고서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합니까?

거의 신뢰안함    약간신뢰    보통    많이 신뢰    전적으로 신뢰

1-----2-----3-----4-----5

54. 일반사회는 교회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할 것으로 귀하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의 신뢰안함   약간신뢰   보통   많이 신뢰   전적으로 신뢰

1-----2-----3-----4-----5

55.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현재 한국교회의 헌금 관리, 헌금 사용 등 재정의 운용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없다   약간 있다   보통   약간 심각   매우 심각

1-----2-----3-----4-----5

56. (상기 55번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선택한 경우) 느끼는 문제점은?

---

---

---

57. 귀교회의 재정 운영상 특색이 있다면?

---

---

---

58. 우리나라 교회 재정문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재정수입, 재정운용, 재정관리 등)

---

---

---

59. 귀하의 생각에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

---

---

60. 기타 교회재정관련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

---

---

---

---

1. 교회이름: \_\_\_\_\_

2. 소속교단: \_\_\_\_\_ (예: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3. 설립년도: \_\_\_\_\_년
4. 교회위치: 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    )
5. 평균장년출석인원: \_\_\_\_\_명
6. 재적(등록)인원: \_\_\_\_\_명
7. 교역자수: \_\_\_\_\_명
8. 유급 사무원 및 행정요원 수: \_\_\_\_\_명
9. 설문지 작성자의 교회에서의 직분: \_\_\_\_\_
10. 설문지 작성자는 교회재정운영에 관여합니까? \_\_\_\_\_